

# 통로로서의 아시아 Asia as Passage

아키라 다데하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예술감독  
다마예술대학교 교수

부산 비엔날레를 위한 세미나에 발표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게 있어서 지금 부산비엔날레의 국제미술학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올 가을에 개최될 제1회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아티스틱 연출가의 한 사람으로서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으로서 먼저 출발하는 부산 비엔날레에 대하여 이 세미나를 기회로 아무쪼록 후배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의 국제 현대 미술전이지만, 오늘은 우선 그 준비 단계로 저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린 후에 부산 비엔날레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요코하마 프로젝트에 조언을 듣고 아울러 국제적인 미술의 청사진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전의 기본적인 사명인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한 그 시기에 따른 현대 미술의 최첨단의 동향을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미술관의 통상적인 전람회와는 달리 무엇보다도 먼저 CUTTING, EDGE (편집)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사명에 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계 각지의 현대 미술의 상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결과가 단지 새로운 경향의 작품 소개만으로 그치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세가 결여되었다면 아무리 대규모이 전람회일지라도 구심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새로운 21세기에 걸 맞는 참신한 가치를 제시하는 것 또한 기획자인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전람회의 전체를 평온하게 총괄하는 테마로서 <새로운 종합을 향해>라고 하는 말은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분석보다는 종합을, 전문 분화보다 융합적, 횡단적인 방법을 지향하고자 목표를 4인의 아티스틱 연출가들이 출발점에서 합의했습니다.

20세기의 문화는 고도로 전문화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다른 영역과의 상호 관련성을 잃고, 좁게 분단된 사회를 초래하였다고 사려됩니다. 저희들은 미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단지 전문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보다 자율적인 입장에서 각 분야의 경계를 넘은 포괄적인 접근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큰 변혁의 시대를 향해서 예술과 사회를 잇는 새로운 종합 비전을 내세우는 것과 현대 미술을 종래의 한정된 틀 속에 넣는 것이, 새로운 세계상의 구축을 향해 시야를 넓혀 다른 예술 장르와 과학, 철학 등과의 교류, 대화의 시도를 대담히 추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일은 전람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의 사회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지만, 오늘의 아티스트들의 활동 중에 분석된 문화의 설정에 대한 넓은 의미로의 비평의식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 유전자 과학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소수파의 문제, 원리주의로 상징되는 종교적, 민족적인 부관용의 사상의 발효 등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된 문화의 위기의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아티스트들의 감수성은 그러한 위기의 감춰져 있는 본질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미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를 눈으로 접하는 것은 적어도 데카당스와 무관심을 넘어 다른 영역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의 가능성을 융화시켜, 또 다른 구제의 길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과 같은 소견으로 저는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 “Passasia”라고 하는 소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Passasia”라 함은 “Passage”와 “asia”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오늘 강연의 표제인 “asia as passage”, 요

컨대 아시아를 문화에서의 자유왕래의 통로로서 다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결코 아시아 중심주의를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Passasia”라 함은 오히려 가능한 아시아의 개념을 상대화하기 위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서양과 동양의 보다 넓은 아시아와 아시아 이외의 문화권과의 자유 왕래의 통로가 되자는 의미가 되고 물론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문화적 자유 왕래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트리엔날레에서 출신지 이외의 지역에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려하는 것도 그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주, 이민이라 함은 자신 출신지의 문화만을 고집하면 타자의 문화와 일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사는 것으로 인해 따라 자신의 문화적 동일성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타적 문화”는 침체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민지에서 익힌 문화가 이주자의 문화를 목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새로운 문화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 순수한 본래의 문화를 부활시키는 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하기 힘든 중대한 자각은 그들을 부평초의 신세가 아닌, 역으로 동일성이라 하는 것이 순수주의만으로는 정리하지 못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중대성은 현실의 이민, 이주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근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많은 적든 문화적인 이민자이고, 이주자인 것입니다. 태어난 곳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불가피하게 다양화되어 버렸다고 하는 역설적인 사태는 확실히 아시아라고 하는 “Passasi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서양화가 스다쿠니타로우(菅田國太郎, 1891-1961)의 발언을 예로 들어 이 문제를 거론하여 보겠습니다. 스다쿠니타로우는 <내 유화는 어디로 갈까?>라고 제목 붙인 텍스트 중에서 근대 일본의 유화는 서양에서 전개된 <정착되지 않는 신 양식>의 도입에 시종일관해 왔던 것에 지나지 않다고 단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풍토와 인연이 없는 자른 꽃가지와 같은 예술이고 일본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 꺾여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화가들은 꽃을 계속 피우게 해야 하고 스스로의 안에 어떤 필연성도 없는 신 양식을 차례차례로 서양에서 계속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었다고 그는 비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의 언어로 풀=자면, 매우 원초적인 문화적 식민주의(와 그 수용)의 비판이 되겠지요. 텍스트가 집필된 것은 패전 직후 1947년으로 일본은 G H O의 통치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패배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근대 서양화가를 대표하는 화가의 한 사람인 그에게 있어 당시의 상황은 서양의 모방이 아닌 일본적 유화의 가능성을 요구시켜야 하는 것의 절실한 동기 부여를 했다는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꺾인 가지를 없애고 일본의 화가로서의 문화적 필연성에 뿌리내린 꽃을 피우도록 한다면, 그 토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필연성을 논하자면 그것은 근대 이전으로 회귀를 일컫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의 근대로부터 서양에서의 수용을 계산한 그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순수한 문화”는 현실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꽃이 뿌리내려야하는 토양이라 함은, 실은 탈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 일체화도 이를 수 없는 서양의 그림자에 빼앗긴 토양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갈등에 가득 찬 일본의 근대에서 서양의 근대가 지워져 버렸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일본만의 순수한 유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공상의 토양에 핀 꽃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다쿠니타로가 모방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 미래의 가는 길을 가리키지 않고 붓을 놓아 버린 이유는 일본적 유화라 함은 달혀버린 반절화(反切花)적 예술이라고 밖에 형용할 수 없고, 결국 그것 자체의 내실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딜레마인 것을 암흑 속에서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적이고, 동아시아적인 미술이 대립 없이 존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적, 동아시아다운 것이라 하는 인식 그 자체가 그것을 침범해 온 것보다 강력한 존재로서 전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하나의 저항으로 성립되어 있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코벨대학의 사까이나오키(酒井直樹) 교수가 최근의 강연 중에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를 반 식민주의라는 전제 없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시아란 함은 하나의 저항 그 자체이고, 바꾸어 말하면 저항이 있는 곳에 저절로 아시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문화적 저항을 순수한 문화부흥으로 복귀라고 간주해서는 안됩니다. 그와 같은 순수주의는 곧 편협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망령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막힌 그들이 부정하려 했던

식민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일찍이 서양에 저항하여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웠던 일본의 이데올로기 역시 그와 같은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아시아주의라는 미명 아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각지를 침략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애국심과 민족적인 자존심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순수주의의 그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아시아를 하나의 저항으로 본다면 그 저항의 대상은 이미 스스로의 안에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시아를 긍정하는 것은 아시아를 침범한 우리들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동일성의 내부에 다른 문화가 없다면 아시아라고 하는 인식은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성의 중대한 긍정은 부관용과 독선의 사상에서 우리들을 구제해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또 다른 문화적 중요함이 있다고 인식한다면 서로의 문화를 가산하는 가능성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로가 순수주의로 분립하는 것도 아닌,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서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남용을 하게 되면 위험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구에는 여러 문화가 있고 그것들은 대등하다고 하는 한계에 놓인 다원주의는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각지의 문화가 어디까지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다원주의에 향한다면, 차이만이 강조되고 절충과 융합은 어중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에는 번역 불가능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확실히 문화의 번역은 궁극적으로는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있어 영원한 과제인 것은 그것이 항상 스틸 가득한 것으로 계속되고 그 불가능에의 도전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일체화를 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필시 그곳에는 절망만이 남을 것입니다.

내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 개인적인 테마로서 "Passasia"라고 하는 말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출품을 의뢰한 아티스트들 중의 10명의 작품을 예를 들면서 현대 미술에 대한 "Passage"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작가들은 태어난 곳과 다른 곳에 살고 있는 3명의 아시아의 아티스트들입니다. 이주자인 그들의 작품은 신체성과 기억, 타인 성이라고 한 20세기의 문화를 지배해 온 문제의 논의를 위해, 자신만의 화법으로 "상대화"하는, 독특한 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슬라이드와 비디오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텍스트에서는 아티스트의 개략적인 소개만을 기입해 둔다.)

시오타치하루 Chiharu Shiota, (1967년 일본 태생, 베를린 주재)

독일로 건너간 후, 마리아나 아부라모비치에게 사사받음. 흙탕물을 가득 채운 옥조에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씻기를 계속 반복하는 퍼포먼스 비디오와 침대, 불탄 피아노 등을 놓아두고 갤러리에 무수한 검은 털실을 마구잡이로 붙여놓는 설치작품 등으로, 환경 안에서의 신체성의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해서 작업에 접목시켜왔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흙탕물로 물들인 커다란 드레스를 몇 벌이나 천장에서 드리워 내려 샤워기로 씻어 내리는 장엄한 분위기의 설치를 제작할 예정.

Sowon Kwon (1963년 한국 태생, 1970년 도미, 현재 뉴욕 주재)

체조 선수의 연기와 복도를 걷는 사람 등의 영상과 그 인체의 움직임의 윤곽선을 컴퓨터로 제작한 영상과 합성시킨 비디오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주관성을 배제한 도큐멘터로서 잡을 수 있는 인간의 동작은 디지털 이미지의 개입에 의해 오히려 생생하게 신체성의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다.

Zhang Huan (1965년 중국 태생, 뉴욕 주재)

중국의 퍼포먼스 아티스트. 북경시절에는 한계 상황 하에서의 인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첨예한 활동을 언더그라운드 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1999년에 뉴욕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부터는 자신을 포함한 누드의 남녀노소에 따른 집단 퍼포먼스 <나의 미국> <시애틀>과 <나의 오스트리아> <캔버라> 등의 스케일이 큰 작업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사진 시리즈 <Family Tree>와 함께 퍼포먼스 <나의 일본>을 시도할 예정.

다음에 소개할 3명은 소위 리서치형 아티스트라고 보여지는 존재입니다.

“Passasia”는 지역과 지역간의 passage 인 동시에 또한 일상적인 사회와 아트와의 사이, 혹은 의학 등 다른 영역과의 사이의 passage, 즉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전체 테마인 <새로운 종합을 향해> 작동하는 passage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yung-ah Ham

서울의 노란 색 제복의 소학생과 동경의 유랑 연예인, 마닐라의 점쟁이 등, 길에서 만난 노란 색 의상의 사람을 추적하고 그 과정을 비디오에 기록한다고 하는 <금속 조각 옐로우>의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아티스트.

Javier Tellez (베네수엘라 출신, 뉴욕 주재)

세계 각지의 정신 병원을 조사하고 비디오에 영상 기록해 등과 도이에 그 병실의 광경을 설치작업을 통해 재현하는 작품을 계속 제작하고 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출품 작품으로는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도 발표할 것이다.

토미타토시아키 Toshiaki Tomita (1971년생, 동경 주재)

친구와 자신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을 인터뷰하여 그 사람들 기억 속의 이미지를 드로잉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토지의 역사에 관련된 광경일 것 같은 드로잉 안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일어나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은 인터뷰와 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는 본질적인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중국의 젊은 아티스트는 출신 문화의 역사적인 이미지를 CG를 통해 따른 기억의 광경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보다 보편적이고 시(時)적 알레고리의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Yang Fudong (상해 주재)

다음에 소개하는 작가는 일본에 사는 독일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Frorian Claar (동경 주재)

위상 기하학에 의해 엄밀하게 계산된 반복, 증식의 패턴을 자연 광경과 시가지의 구성 원리로서 응용한 설치작품 위에 CG에 따른 비디오 영상을 투영하는 것에 따라 인위적인 사계의 변화가 아름답게 겹쳐 합성된다.

마지막으로 이 전람회의 심벌격인 두 사람의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국강 Cai Guo-Qiang (뉴욕 주재)

화약을 사용한 야외에서의 이벤트 등, 장대한 스케일의 작품으로 알려진 아티스트이고,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불꽃놀이는 묘사하는 화약이 터지는 전선줄을 장식해서 천장에 드리우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환담을 나누는 독특한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오프닝 이벤트로서 중국에서 특별히 주문한 화약이 사용되는 “불꽃놀이”도 예정되어 있다. 중국 출신으로 뉴욕 주재.

쿠사마야요이 Yayoi Kusama (1929년생, 동경 주재)

정신 병리적인 강박 관념에 따른 상동 반복을 일관해서 작품제작 모티브로 삼고 있는 아티스트. 그 강렬한 개성은 내면에 잠재된 것에 향함이 아니라 거꾸로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는 세계의 찬가를 우리들의 앞에 표출시키고 있다.

슬라이드와 비디오에 의한 소개는 이상으로 끝나치겠습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전체적으로 100명을 넘기는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저의 섹션에서 아시아 출신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극히 일부만을 게재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은 뛰어나기도 하지만 “art for art sake” 라고 하는 자기 목적의 이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대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문제로 발 디디고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대사회의 일각에서는 완고한 순수주의에 입각한 독선적이고 타인에 대해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대두해 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맞서 21세기를 맞이한 전람회에 걸맞는 상호 이해를 지향하고 융화로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소설가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소개드리고 저의 발표를 끝내고자 합니다. 그는 수상 후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데카당스와 타인에게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가득찬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REJOICE>라고 말하지 않으면 기쁨을 모두가 공유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